

#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11월 19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53호

1982년 8월 8일 창간



##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장미옥 -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저희 자매를 강원도 산골의 외갓집에 맡기고 서울로 돈 벌러 가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살게 된 곳은 사진에서 보던 화려한 서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예쁜 교복을 입고 중학교를 다닐 생각에 설레었는데, 인왕산 산자락 동네의 한 집에 7가구가 모여 살며 물도 돈을 주고 양동이로 길어와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공부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낮에는 일하면서 야간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힘들었지만 나중에 백마 탄 왕자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옛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 희망을 가지고 견뎌왔습니다. 그렇지만 꿈에 부풀어 시작한 결혼생활은 저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연탄불에 지은 밥을 먹고 도시락을 들고 서울로 두 번 버스를 갈아타면서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는 매형의 건설회사로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 앞이 캄캄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교회에 다니는 분과 재혼을 하시고 함께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니시더니 조용목 목사님이 안양에 교회를 개척하신다니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교회가 설립되자 더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어머님 댁에서 구역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가서 구역 성도님들이 교제하면서 간식으로 드실 팔죽을 쑤어 드리던 일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경상도 저의 시댁에는 시할머니와 시부모님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시누이 둘이 살고 있었는데, 저는 어릴 때 외롭게 자란 터라 것처럼 여러 식구가 한집에 모여 사는 대가족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이 장손이어서 명절을 제외하고도 1년에 제사를 9번이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다가 시어머니는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추종하면서 미신을 따랐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기 전이었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이 싫었습니다.

1985년도 년말이었습니. 제가 사는 동네 연립주택 단지에서 저를 친근하게 대해주던 제 또래 아줌마 집에 놀러갔더니, 수요일인 오늘 교회에 가기로 약속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도 같이 가겠다고 하고 아줌마를 전도한 권사님을 따라 은혜와진리교회에 가서 2시에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처음 듣는 설교였지만 조용목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교회에 처음 왔는데 오랜만에 고향 친정집에 온 듯 포근하고 마음이 편안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았습니다. 더욱이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여서 더 좋았습니다.

그 후로 구역예배, 주일예배, 주중예배, 단합예배 등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였습니다. 그동안 친정어머니와 가까운 친척들에게 잘살고 있는 척, 행복한 척하며 숨길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전에 없던 여러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의료보험 카드가 없어 아이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병원비가 부담이 되었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전도사님의 기도를 받고 오면 언제 아팠는지 모르게 나왔습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저와

함께 다니고 저보다 나이가 1살 더 많은 이모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기에, “이모, 교회에 다녀. 나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소망이 생기고 몸도 건강해졌어...”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시댁에도 종종 안편지를 쓰던 때였는데 이모와 시부모님에게 각각 보낸 편지봉투 속 편지가 제 실수로 뒤바뀌어 보내진 것입니다. 시어머님은 “우리 집은 장손집이라 안 된다. 내 눈에 흠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된다”며 극구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구역 성도 중에 아이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교구 전도사님이 심방 오셔서 저랑 둘이 성가대에서 봉사하면서 기도하도록 권하셨습니다. 순종하여 성가대에서 봉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랍게도 저희 둘이 동시에 임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남편이 자동차회사에 다니고 나이가 저와 비슷한 옆집 부인이 명절이나 휴가철에 보너스를 받았다면서 자랑을 하였습니다. 제 남편은 일당을 받는 일을 하고 있어서 명절이 지난 다음 달에는 더 경제적으로 조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히브리서 11:1)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남편이 바로 그 자동차회사에 입사하여 첫 출근한 날짜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1988년 3월 2일입니다. 남편은 이후 35년 동안 일을 잘 하고 최근에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습니다. 단독주택 2층에 살 때는 여름에 너무 더워서 저녁에 옥상에 물을 뿌려 열기를 식혀야만 밤에 잠들 수 있었고, 겨울에는 습기 찬 벽지와 벽 사이로 물이 줄줄 흘러내려 방바닥에 고일 때도 있었습니다. 단독주택이면서 따로 출입구가 있는 집에 세를 들어 살 때는 구역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집주인이 찾아와 ‘뚝뚝’ 문을 두드리더니 당장 전세금을 내줄 테니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찬송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나 봅니다. 할 수 없이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찬송가를 소리 내어 부르지 않고 성경말씀을 읽듯이 가사를 읽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한 상황에 마음이 아파서 울고 또 한편 가사 한 절 한 절이 마음에 깊이 와 닿으며 감동되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은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내 집 마련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연립주택에 독채 전세로 들어가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살던 91년 여름에, 장시간 폭우가 내리면서 안양천 물이 역류하여 온 동네가 난리가 나고 집 밖 골목에 물이 허벅지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1층인 저희 집의 문턱까지 채 10cm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이사야서 43:2) 한 성경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더니 물이 빠져나가면서 저희 집은 무사하였습니다.

남편 회사의 사원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어 광명으로 이사한 후 저는 수석구역장 직분을 받고 교회학교에서 초등부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구 전도사님과 전도하러 다니며 멀리 논둑길을 걸어서 심방을 가는 재미 등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매주 복음지 100부씩을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처음 전도상을 받았습니.

시누이들이 고등학교일 때 더욱 시댁 식구들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명절에 시골에 내려갔더니 시누이가 “언니, 저 엄마 몰래 교회 다녀요.”라고 하여 저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댁 가족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시댁의 가정복음화를 위해 더 노력하고 더 힘을 내서 기도하였습니다.

저희가 입주하여 생활하는 사원아파트는 3년의 거주기간이 끝나면 다른 직원가족을 위해 비워줘야 하는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원대학에 다니며 공부하느라 특근 등을 하지 못해 월급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고 온전한 심일조를 드리며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낭비를 막아 주시며 그 3년 동안에 저축을 많이 하도록 여러 모로 도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사기도회 때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도제목을 내놓고 선생님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렸더니, 총무님이 “안양에 사는 제 친구가 집을 팔아야 한는데 한번 가서 보시지 않겠어요?” 하였습니다. 총무님이 건네주신 주소를 보니 제가 단칸방에 살 때 안양천 건너에 있던 고층아파트, 제가 아이들을 세워놓고 배경을 삼아서 사진을 찍었던 바로 그 아파트였습니다. 우리 형편에는 너무나 크고 좋은 그 아파트를 사서 이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님 환갑 때에 동네잔치를 하기 위해 저와 큰 시누이가 먼저 가서 방앗간에 떡을 하러 가는데 이상하게 제 입에서 의도하지 않은 방언기도가 나왔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는데 집에 돌아오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동소방서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곧 택시가 도착할 것입니다. 차는 폐차시키고...”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던 그 시간에 남편, 아들, 시누이 둘을 태우고 시누이 남편이 운전하여 시댁으로 가던 차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가서 갓길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된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차에 타고 있던 다섯 사람이 사고 즉시 정신을 잃었다가 차에 불이 붙기 전에 깨어나서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였고, 모두 크게 다친 곳 없이 무사하였습니다. 조상님이 도왔다든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이 “애들 엄마가 평소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 하더니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말을 하여 저를 더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에 시어머님의 핍박이 크게 줄었습니다.

시할머니가 저희의 새집 구경을 오셨는데 돌아온 주일이 마침 우리 교회 의료선교회에서 광명성전에서 진료봉사를 하는 날이었기에 몸이 가려워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가서 진료와 치료를 받게 해드리고 예배에 참석하여 결신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나이에 비해 건강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자주 아프셨고 특히 담석증으로 인해 안양 저희 집에 오셔서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도 받으셨던 시어머님은 제가 전도하면 “내가 병을 고치러 왔지, 교회가러 왔나?” 하며 역정을 내셨는데, 주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매우 못마땅해 하셨던 시어머님도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에 다니시며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올해 3월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 어머니는 ‘우리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 반 동안 시누이를 데리고 살면서 잘 보살펴 주었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늦게라도 시부모님 두 분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 상황으로 바뀌고 금요기도회를 교회당에서 드리게 되자 저는 금요기도회 성가대에서도 봉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저의 일하는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한 달 넘게 계속 요청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금요일은 더 바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회사에 저는 하나님이 주신 담력과 용기로 ‘그러면 나는 그만 두겠으니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했더니 회사에서 저의 근무 시간을 조정해주고 월급까지 올려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저의 두 자녀도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잘 자라서 지난 2019년 2월과 6월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요즘 성가대석에 앉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역공과

제1권 (제4단원 :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제23과) 성령님은 누구신가?

- 본문 : 디도서 3:5-7
- 요절 :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 3:6-7)
- 찬송 : 169장(새찬송가 182장), 177장(새찬송가 190장)

성도가 성령님에 대해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 성령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성령님의 주시는 은혜에 기인하였음을 감안할 때 성령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고전 12:3).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을 믿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면을 살펴볼 때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1.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도 동참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시 104:30)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하나님의 신,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도 창조 사역의 주체였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1:3)고 말씀하심으로 성자 예수님의 창조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천지창조는 성 삼위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19)라고 말씀하심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인 것은 성령님의 성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을 성령님도 동일하게 소유하고 계심을 볼 때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며(고전 6:11), 한량없이 선하시며 진실하신 분이십니다(시 143:10, 느 9:20).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고전 2:10). 이런 면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확실히 성령님께서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성령님은 예수님이 구세주되심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보증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에 거룩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논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가 되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고전 12:3).

성령님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워집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의 영’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갈 4:6).

본문의 말씀에도 믿는 성도들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풍성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한 성령님의 사역에 증인으로 쓰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 성령님은 성도의 심령속에 내주하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으며, 이 은혜가 결코 반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속에 내주해 계시기 때문입니다(고전 3:16).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딤후 1:14)는 말씀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의뢰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신앙적인 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를 힘입어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죄를 멀리하며 성령님을 깊이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삼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받으실 뿐 아니라, 모든 사탄의 꾀계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며, 성도의 삶의 주권자로서 통치하시고 경배 받으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단절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4.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 각지로 보내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보내셨습니다(마 10:1). 제자들이 유대 각 지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기적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역들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동일한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의 기간 중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를 늘 유지하였기 때문에 큰 권능을 나타내셨던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행 10:38).

그러므로 제자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성령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행 1:8).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하여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더욱 견고히 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병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병화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